

20대 경기지역 국회의원 핵심공약 성적표

경기방송은 국회의원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취재기자 3명이 함께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검증 내용을 다시 한번 의원실과 협의해 사전 반론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자체 성과와 반성을 담을 수 있는 평가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지역구	경기도 평택 갑	정당	자유한국당	이름	원유철
-----	----------	----	-------	----	-----

1. 제출하신 5대 핵심공약표의 실천여부

핵심공약	성격	공약명	공약내용	실천여부 (진행상황)
1순위	국정	동-서 횡단철도(평택~강릉) 조기착공	동-서 횡단철도(평택~강릉) 조기착공	이행
2순위	지역	‘평택 예술의 전당’ 건립	‘평택 예술의 전당’ 건립	미이행
3순위	지역	진위천 주변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생태공원 조성	진위천 주변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생태공원 조성	이행중
4순위	지역	평택북부경찰서 신설	평택북부경찰서 신설	이행
5순위	지역	송탄출장소앞 도로 - 고덕신도시(지장초앞) 도로 개통	송탄출장소앞 도로 - 고덕신도시(지장초앞) 도로 개통	미이행

20대 경기지역 국회의원 핵심공약 성적표

경기방송은 국회의원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취재기자 3명이 함께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검증 내용을 다시 한번 의원실과 협의해 사전 반론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자체 성과와 반성을 담을 수 있는 평가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지역구	경기도 평택 갑	정당	자유한국당	이름	원유철
-----	----------	----	-------	----	-----

2. 5대 핵심공약의 실천여부 검증

핵심공약	공약명	검증 (한줄평)	점수배점 각 20점
1순위	동-서 횡단철도(평택~강릉) 조기 착공	동서 횡단철도, 국가 경제 지표 변화 가져 올 것	18
2순위	‘평택 예술의 전당’ 건립	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문화시설 확충도 중요 과제	18
3순위	진위천 주변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생태공원 조성	시민 휴식 공간 개발은 계속 돼야	15
4순위	평택북부경찰서 신설	인구 급장에 따른 치안 유지는 필수 항목이다	18
5순위	송탄출장소앞 도로 - 고덕신도시(지장초앞) 도로 개통	도로 개통 필요하나 쉽지 않은 얘기...	15

20대 경기도지역 국회의원 핵심공약 성적표

지역구	경기도 평택 갑	정당	자유한국당	이름	원유철
-----	----------	----	-------	----	-----

3.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와 반성의 한마디

5선 국회의원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과분한 사랑과 격려가 헛되지 않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기대에 보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에서 저는 2010년 제18대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 우리도 북핵 위협에 맞서서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핵 위협이 현존하는 가운데 재래식 전통 무기만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14년 19대 국회 때에는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원내대표 시절에는 미국의 핵우산이 북핵 위협을 제거하는 소중한 우리의 안보 자산이지만 비가 올 때마다 옆집 가서 우산을 빌려올 수 없듯이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 자유한국당 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들 모임(핵포럼) 대표를 맡고 있고, 북핵·외교·안보를 총괄하는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정권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켜 나가는데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이 포함된 확장억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외교 정책이 가변성이 높아져 가서 걱정입니다. 방위비 협상과 관련돼서도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 얘기가 나오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트럼프 리스크도 제거하고 방위비 협상에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는 유럽의 나토식 핵공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이는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발표한 '민평론'에서도 제시된 바 있고, 앞으로 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지역구 평택에는 주한미군 및 가족들 3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들이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인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의 예산을 9억 3,7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주한미군 홍보대사 프로그램을 공공외교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협의해왔고, 그 결실을 맺어 2020년, 6억 9,300만원 증액된 9억 3,700만 원의 예산을 책정받았습니다. 위 예산을 활용해 주한미군이 근무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예술, 한류 등을 전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